그 사람 지금은

(7) 고재청 前 국회부의장

"1987년 DJ·YS 분열 두고두고 아쉬워"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비교적 인간적이고 사람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 관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반면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해박한 지식과 진취적 사고를 가진 앞서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철승은 국가관과 신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담양·곡성·화순의 4선 국회의원으로 70~80년대 굴곡의 한국 정치사 현장에 있었던 담양 출신의 고재청(78) 전 국회부의장이 DJ, YS 등 한국의 대표적인 원로정치인에 내린 평가다.

그는 나아가 "머리에서는 부족한 YS가 원내총무 경선 등 갖가지 경선과 선거에서 DJ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류와 영남 측 인사로서 많은 의원들을 확보했던 것 외에도 인간적 교류 폭이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전 부의장을 17일 오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에서 만났다. 아들, 손자·손녀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고 전 부의장의 얼굴엔 그늘이 있었다. 만년 야당 의원을 지내면서도 꿋꿋하게 정치를 하던, 김대중(DJ)·김영삼(YS)·이철승씨 등 한국의 내로라 하는 정계 거물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원로 정객의 고뇌가 묻어났다.

"북핵 불안·경제바닥인데 국론 좌·우대립 해서야"

"90년초 정계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국민은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 등 외교 관계, 소득 격차, 노사문제 등 어느 곳에서도 합일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바닥이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인터뷰 요청을 고사하다가 애원하는 고향 후배의 청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기자를 만난 고 전 부의장은 하고 싶은 말을 아끼면서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듯 말을 이었잤다.

"정권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소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전남 주민들도 이제는 다른 것보다 국익을 위해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전 부의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괜한 오해를 살까봐 염려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광주 서중과 서울 상대를 나와 민주당 창당 주비위원을 지내는 등 젊어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고 전 부의장은 1972년 신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9대 총선거에 나서 금배지를 달았다. 그가 당시 담양·곡성·화순의 재선 현직 국회의원을 물리치고 공천을 받은데는 10여년 이상을 정치권의 주변에서 끊임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산, 김영삼, 이철승 등 내로라하는 정객들과 교분을 쌓았던 결과였다. 고 전 부의장은 이후 야당으로서만 4선을 하고 국회부의장까지 했다.

고 전 부의장은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여당과 YS로부터 수많은 구애를 받았다. 여기에는 명문 창평 고씨(본관은 장흥) 후손으로서 후광을 얻은 바도 컸다. 고재욱 전 동아일보 사장·고재필 전 보사부 장관·고윤석 전 서울대 부총장·고문석 전 한양대 법대학장·고일석 무등양말 창업자 등이 같은 집안 사람일 뿐 아니라 고재호 전 대법관과 고재량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친형이고 헌법재판관을 했던 고중석씨가 조카다.

약 력

- ▲1928년 담양 출생
- ▲광주서중, 서울대 상대 졸업
- ▲9~12대 4선 국회의원
- ▲신민당 대변인, 민한당 원내총무
- ▲국회 부의장
- ▲헌정회 원로회의 부의장

그는 "5공 때 민정당과 함께 하자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며 "하지만 '광주가 불탔는데 어떻게 여당을 할 수 있느냐, 야당이나 해야지'라고 우기면서 야당(민한당)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고 전 부의장은 야당에서 YS, DJ 등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YS와 가까웠다. 하지만 정치의 뿌리를 호남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92년 대선 전에 YS가 김동영을 보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며 "그 뒤로는 같은 당의 모 의원을 통해 '전국구'를 이야기하는 등 또 다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지난 85년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는 고재청(위) 국회부의장. 아래는 국회 연설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

누구보다도 의정 활동에 열심이던 그에게 87년 대선 때부터 벌어진 야권 분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는 "당시 평민당 소속으로 대선을 치르기도 했지만 이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민 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고 패거리로 나눠서 개인과 당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4선이 끝나는 88년께 평민당을 탈당하고 정치를 그만뒀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것이다. 당초 정치를 할 때 국회의원 한두 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족해 하기도 했다.

고 전 부의장은 이후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 흔한 회고록도 쓰지 않았다. 정직한 글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거짓을 쓰고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헌정회 수석부회장, 고문, 원로회의 부의장이 활동의 전부다. 골프, 독서, 여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DJ, 진취적 사고 앞서가는 인물 YS, 인간적이고 사람관리 잘해"

그는 "의원을 그만두고 독서다운 독서,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며 "골프를 너무 즐기다가 최근 3년 쉬었지만 이제는 다시 골프를 시작해야 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고 전 부의장은 꼭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슴 속 깊이 간직해온 말을 했다.

"정치를 하면서 주위에서 도와준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예의를 못 갖춘 것에 대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꼭 고마웠다는 인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거문도

中·日 오가는 전략적 요충지 1885년 英 불법점령 아픔도

나로도항에서 쾌속여객선에 올랐다. 남쪽으로 54㎞를 직항하면 한 시간 만에 거문도에 이른다. 손죽도와 초도를 들려 가면 30여분 지체된다. 거문도는 육지와 제주,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길목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거문도항은 가장 큰 서도, 옛 수군진이 있었던 동도, 그 가운데 고도가 에워싼 100만평 규모의 천혜 양항이다. 삼도를 합한 면적은 흑산도의 세배 크기인 370만평이고, 최고봉은 망향산(247m)으로 동도에 있다. 서도에는 여자 산인 음달산(237m)과 남자 산인 수월산(194m)이 솟아 있고, 그 사이 불탄봉(195m)에 오르면 고도의 회양봉(107m) 기슭 아래 거문항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도는 세종 때부터 일본인이 살았다하여 '왜(倭)도' 또는 '이(夷)도'라 불렀다. 한말 일본인들이 '옛섬'이라며 고도(古島)를 사용했다고 한다. 게(蟹)형국의 발터에 자리한 면사무소를 비롯 수협, 지서가 자리한 고도는 지금도 '이도(섬)'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거문도는 청나라 수군제독 정여창이 귤은 김유(1814~1884) 같은 문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거문(巨文)'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거마도(巨磨島)'라 표기돼 있다. 고도의 형태가 거미를 닮아 '거무섬'이라 부르다가 거마를 거쳐 거문이 된 듯하다.

서도 수월산에서 바라본 거문도항.

서해 검은 바다 큰 섬이 흑산도라면 남해는 거문도다. 이 섬 연혁은 1355년 흥양(고흥), 1888년 귤촌에 수군진 설치, 1895년 폐진, 1896년 돌산군, 1908년 삼산면 설치, 1914년 여수군 소속이 되었다.

영국은 1885년부터 두 해 동안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한다며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함장이름을 따 '해밀턴(Hamilton·哈米敦島)이라했다. 900여 명이 주둔하면서 동양의 지브롤터로 여기고, 방파제 공사까지 벌였다. 거문리 산2-28번지에는 당시 숨진 수병 9명의 무덤이 있었으나, 현재 3기가 남아 있다.

1905년 서도 수월산 자락 남쪽 끝에 설치된 등대는 동양 최대로 광달거리(光達距離)는 40㎞에 달한다.

등대로 가는 길은 도보로 40여분 걸린다. 고도 여객선 선착장에서 1991년에 놓인 길이 250m의 삼호교를 건너 유림해수욕장을 거쳐 언덕을 넘어선다. 목넘어 파식대를 거쳐 동백, 광나무, 돈나무, 까마귀쪽, 우묵사스레피 등 난대성식물 숲 터널을 지난다. 등대 끝에 있는 관백정에서 바라보니 1979년 국가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로 가는 유람선이 보인다.

거문도항은 남해의 어업전진기지로 280여척의 배가 갈치, 삼치, 농어, 우럭, 방어, 돔, 전복, 해삼을 잡고 있다. 현재 6개 마을에 800 세대 1천700여명이 살고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